

## 言語階層에 따른 意味解釋 考察

具 滋 銀

英語英文學科

(1982. 10. 30 접수)

## 〈요 약〉

Chomsky 문법은 意味가 완전 除外되었던 Syntactic Structures를 시발점으로 하여 4단계의 변천을 겪어 왔다. 그러나, Aspects에서는 의미가 문법의 한 獨立部門으로 도입되었고, 심층구조가 投射規則은 통한 의미해석의 모든 情報를 內包하고 있었다. 이 標準理論은 表層構造에서도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여러 反證으로 말미암아 곧 廣大標準理論에 의해 수정 버치되었으나, 이 理論도 表層構造 意味解釋을 위한 적절한 규칙을 提示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궁지에서 Chomsky 문법을 구원하고 새로운 의미해석을 시도한 것이 痕迹理論이다. REST에 의하면 심층구조의 文法關係는 추후 의미해석을 위해 NP가 이동하고 난 후의 흔적 t를 표시함으로써 표층구조에 表示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意味는 흔적표층구조에서 分析規則, 解釋規則, 結束條件 등을 통하여 해석되어지며 최종적으로 論理形式에 이룬다고 주장한다.

本 論文은 上記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언어 계층에 따른 의미해석은 특히 Chomsky 문법 발전과 관련하여 考察하였다.

本 論文의 研究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拙稿에서는 投射規則의 出力인 순수하게 문법적인 언어 능력을 반영하는 言語的 意味에 局限하고 있으나, 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해석은 言語遂行 즉 발화와 관련된 意味도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EST는 最終構造標識에 적용하여 의미를 해석해 내는 어떤 意味部門과 해석규칙 등으로 그 문법이 보강되어서야 하며,

셋째, 흔적표층구조물 音韻 및 意味表示의 入力으로 하는 核心文法은 실제 사용하는 統語構造를 중시하게 됨으로써 문법이 한걸 具體化되었으며,

네째, 흔적이론의 도입으로 각종 變形이 外在的 順序없이 任意的으로 적용되어지며, 그 결과 統語上의 適格文이 過剩生成 되어지나 순수 표층해석이 이런 류의 문장 出現을 방지함을 볼 수 있었다.

## Semantic Interpretation on Linguistic Levels

Koo, Ja-Eu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October 30, 1982)

## 〈Abstract〉

Chomskyan grammar has undergone four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its initiation in *Syntactic Structures*, where meaning was totally excluded from grammar. In *Aspects*, however, meaning appeared as one of the tripartite components of grammar, and its interpretation through a system of rules (i.e., Projection Rules) was entirely dependent upon deep structures. This hypothesis(ST), confronted with the counterexamples that meaning can also be interpreted from surface structures, in turn gave place to EST. Arriving at this stage Chomskyan grammar

seemed to be trapped in a cul-de-sac, with no adequate rule to explain new semantic interpretation from surface structures. Trace Theory saved Chomskyan grammar from this predicament, and provided a new approach to semantic interpretation. Assuming that grammatical relations of deep structure may be preserved in surface structures, for later semantic interpretation, through marking the anaphoric trace left by the moved NP, this theory (REST) contends that meaning is interpreted from trace-preserving surface structures through construal rules, interpretive rules, and conditions on binding, finally, leading to logical form.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bove mentioned, aims at studying semantic interpretation on linguistic levels and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homskyan Grammar.

The results shown in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is puts focus on linguistic meaning, the output of projection rules, that does reflect pure grammatical competence, the total meaning of a sentence must include meaning in connection with utterances, let alone meaning in connection with the linguistic sentence types.

Second; EST must be supplemented with a new semantic component and actual interpretation rules in grammar to operate mainly on final derived phrase markers.

Third; Given surface structures with traces as input of phonological and semantic representation, grammar (Core grammar) places such a great emphasis on syntactic structures that it seems to be far more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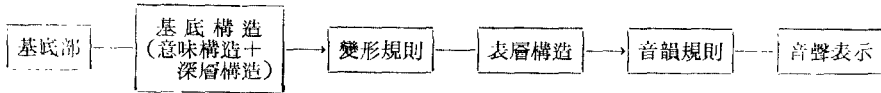
Fourth; As Trace theory can dispense with rule ordering and obligatoriness of rule application, syntactic rules tend to overgenerate syntactically well-formed sentences, which may, fortunately, be filtered out by a theory of surface interpretation.

## I. 理論的 背景과 範圍

言語階層(linguistic level)의 概念은 언어이론의 중심개념으로 문법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記述的 裝置들의 集合體(set of descriptive devices)로 볼 수 있다. Chomsky는 그의 *Syntactic Structures* (1957)에서 문법의 發見節次(discovery procedure)가 아닌 評價節次(evaluation procedure)를 제공할 수 있는 最上의 언어이론은 최소한도 세 가지 階層, 卽 句構造(Phrase Structure), 變形構造(Transformational Structure), 形態音素構造(Morphophonemic Structure)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文法에서 意味部門을 除外시켰다. 그러나 문법이란 언어의 音과 意味사이의 有機性을 표현하는 約束과 規則의 體系이므로 Katz & Fodor (1964)와 Katz & Postal(1964)에서 비롯하여 Chomsky(1965)에서 일관되지는 標準理論에서는 意味

가 문법의 독립된 한 部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意味解釋에 필요한 모든 情報은 深層構造에 內在하고, 이 심층구조가 곧 의미부문의 入力이 되며 여기서 그 意味를 解釋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pects*以後 많은 언어학자들은 Chomsky가 처음 설정한 深層構造란 존재할 수 없다는 結論에 이르렀는데 그 하나가 '深層이 충분치 않지 못하다'(Deep structure is not deep enough)는 生成意味論者들이요, 다른 하나는 '深層이 너무 깊다'(Deep Structure is too deep)는 解釋論者들이다.

Lakoff, McCawley, Bach, Gruber 등 생식의 미론자들은 문법의 意味部門은 基底部(base)의 일부이므로 독립설정이 필요없으며 주어진 意味의 構文은 意味表示를 始發로 하여 統語와 音韻 두 部門을 거치는 동안 發音으로 生成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히 圖示하면 아래 도표 (1)과 같다. 이들은 基底構造란 종래의 標準深層構造보다 더 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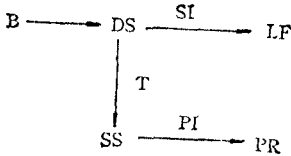
(도표 1)

象성이 높은 것으로서 해석론자들의 意味構造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深層의 어휘항목은 더 이상 分析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버리고, kill→CAUSE BECOME NOT ALIVE, remind→STRIKE AS SIMILAR TO, stop→CAUSE STOP 처럼 어휘를 그 의미에 따라 細分하면서 문장 'Henry stopped Drusilla'와 'Henry caused Drusilla to stop', 그리고 문장 '영이는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와 '철수는 영이에게 책을 받았다'를 同一한 意味를 가진 것으로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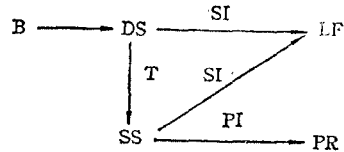
그런데 반해 Chmsky를 비롯한 Jackendoff,

Rosenbaum 등은 深層構造가 처음에 構想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고 '表層에 가깝고 前보다 辭典과 統語部門의 역할이 커진 문법을 구상했다. 특히 Chomsky는 意味解釋에 관한 情報은 표층구조에서도 表示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EST를 제시하였고, 마침내는 '痕迹(trace)表層構造'라는 階層概念을 도입함으로써 의미해석은 순전히 표층구조에만 局限시키는 TT를 주장하게 되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上記 略述한 일련의 解釋意味論의 변모와 그 意味解釋 과정을 圖示하면 아래 도표 (2)와 같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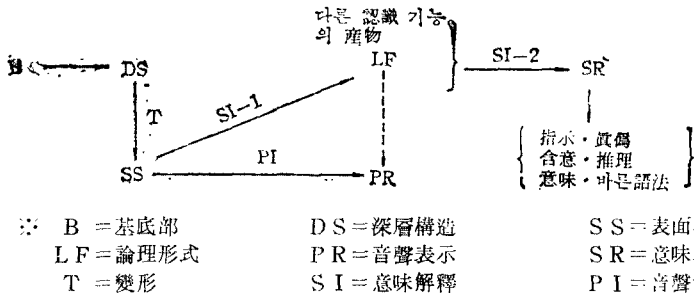
a. 標準理論(ST)



b. 擴大標準理論(EST)



c. 修正擴大標準理論(T.T.)



(도표 2)

비록 한 문장의 전체적인 意味解釋은 形式素(formative)와 文法構造(grammatical structure)에 의해 표현 가능하다. Chomsky도 그의 標準理論에서 문장의 뜻을 완전히 判讀(reading)하기 위해서는 우선 辭典에서 선택한 올바르게 배열된 語彙項目과 문법적 構造情報가 필요하며 여기에 投射規則(projection rule)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빈화문에 대한 의미해석은 意味特性의 集合體(sets of semantic features), 즉 두사규칙

의 出力(output)이란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며 發話環境 선택에 대한 측면에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Katz & Fodor(1964, p.486)와 Hymes(1974, p.206)는 말화의 환경은 nonlinguistic context (full socio-physical environment)와 linguistic context(written or spoken discourse)로 구별하면서 言語外的 情報도 文의 判讀에 關여한다고 했다. Austin(1962)에 의하면 "하나의 發話는 우선 모종의 意味(meaning=sense+reference)를 표현

(1) 崔昌烈, 國語意味構造研究(서울: 한신문화사, 1980), p.7.

하는 表現行爲(locutionary act)를 行하며, 동시에 ings고, 제의, 약속등의 意圖의 機能을 수행하는 非表現行爲(illocutionary act)를 이룩하며, 그 결과 話聽者의 감정, 생각, 행위등에 모종의 結果的 効力을 가지오는 表現達成行爲(perlocutionary act)를 성취한다<sup>(2)</sup>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 (1)은 (2)의 兪법, ings고, 兪법 제의중 어느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1) 선생님이 오시다.
- (2) a. 기다리던 선생이 이제 오시다. (兪법)
- b. 초영하를 데! (ings고)
- c. 선생님이 오시니 뭘 이제 구지람 들을꺼야! (兪법)
- d. 선생님이 오시니 선생님에게 물어보라. (제의)

하지만 Chomsky는 “한 언어의 문법이란 話聽者가 가지고 있는 內在的 言語能力은 기술하려는 것”<sup>(3)</sup>이라 규정하면서 言語遂行(performance) 즉 具體的 狀況下에서의 실제적 言語使用(actual use of language in concrete situation)에 대한 연구를 도외시 했는데, 이 사실은 황재륜(1975, p.4)은

“The main concern of chomskyan linguistic theory is with ‘grammaticalness’, which belongs to the study of competence; and ‘acceptability’, which belongs to the study of performance, is at most a side-issue in generative grammar”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반성으로 本 論文에서는 Chomsky의 이론 비판과정은 중심으로 意味解釋을 論하며, 第二章에서는 심층구조에 삽입되는 각 어휘형태의 統語 및 意味特性和 문맥속에서의 文脈特性(contextual feature), 그러고 의미해석 장치인 投射規則 등의 고작은 통하여 文의 율파를 深層構造 意味解釋 投射階段을 규명하고자 하고, 第三章에서는 斷言(topic), 焦點(focus), 前題(presupposition) 등 보다 높은 단계의 言語의 邊은 言語外的 意味現象(linguistic or extralinguistic aspects of meaning)은

제시하면서 초기 이론을 수정 보완한 表現構造 意味解釋論의 타당성과 문제점은 실되며, 第四章에서는 표층구조에 痕迹(trace)은 남겨 이를 보강함으로써 의미해석은 순수히 표층구조에서만 행해지는 恣의 이론 筭의 고작은 통하여 언어 階層에 따른 文의 意味解釋 과정을 검토해 보려 한다.

II. 語彙 및 文脈特性和 投射規則

前記한 바와 같이 Katz & Fodor(1964)와 Katz & Postal(1964)에서 비롯하여 Chomsky의 *Aspects* (1965)가 출판됨으로써 문장의 의미해석은 결정해 주는 의미부분이 문법의 한 독립부분으로 등장해 있었는데 이러한 理論的 意味論 특징을 Bach는 다음과 같이 요약 기술하고 있다.<sup>(4)</sup>

- 1) 意味解釋은 오로지 심층구조에 의존한다.
- 2) 投射規則은 심층요소들 더 큰 單位로 통합한다.
- 3) 句構造標識에 무차규칙이 적용된 결과는 P-marker가 아니다.

여기서 意味部門은 심층구조에 삽입되는 어휘단어의 意味情報를 기초로 하여 投射規則이 적용되면서 意味를 해석해 내게 되는데 이를 수일 註目 標로 考察해 보자.

II.1 意味論 측면에서 어휘정보를 나타 주 등 어휘정보를 표시해 주는 문법부분(grammatical portion)과 주어진 문장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意味(sense)를 표시하는 意味部門(semantic portion)으로 나누어질다.<sup>(5)</sup> 또한 Katz & Postal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초로서 語彙部(lexicon)에 걸린 계층 어휘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다.

“an entry consists of a finite set of symbols, each sequence consisting of an initial subsequence of *syntactic markers*, followed by a subsequence of *semantic markers*, then, optionally, a *distinguisher*, and finally a *selectional restriction*.”<sup>(6)</sup>

그러서 그들은 bachelor나 구제적인 名詞의 意味情報를 意味標識(semantic marker)의 識別

(2) Austin, John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 Press, 1962),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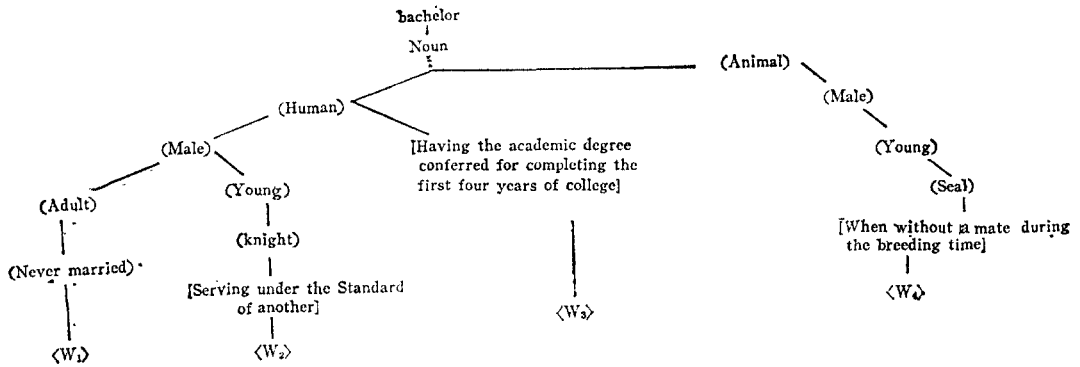
(3) Chomsky (1965), p.4. “A grammar of language purports to be a description of ideal speaker-hearer’s intrinsic competence.”

(4) Emmen Bach, *Syntactic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4), pp.123~124.

(5) Katz and Fodor (1964), p.494.

“a dictionary consists of two parts: a grammatical portion which provides the parts of speech, and a semantic portion which represents each of the distinct senses the lexical item has in its occurrences as a given part of speech.”

(6) Katz & Postal (1964), p.13.



(도표 3)

(distinguisher)로 구분하여 상기 도표 (3)같이 표시했다. (7)

以上에서 bachelor의 의미는 4가지의 독특한 sense의 集sum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는데, 한 어휘가 갖는 이런 sense의 개념을 나타내는 意味標識(or 意味特性)<sup>(8)</sup>는 다른 어휘항목의 判辭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설명가능한 理論的 構造이며 동시에 사물의 一般屬性을 표시하는 객관적인 思考內容이라고 볼 수 있다. 意味標識가 갖는 이러한 속성 즉 한 어휘항목에 나오는 의미특성은 어휘부에 있는 많은 다른 어휘항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Human, ±Animate, ±Physical Object 등과 같은 意味標識의 結合으로 된 자 어휘항목은 그 結合의 수단과 가능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意味의 曖昧性을 해소할 수 없다. 이의 해결책으로 Katz & Fodor(1964)는 특정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意味環境을 明細化하여 애매성을 제거시키는 識別素를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식별소란 사견상에서 의미분배가 최대한으로 제한된 意味標識 즉,

“Distinguishers may be regarded as a semantic markers with maximally limited distribution in the dictionary.”<sup>(9)</sup>

(7) 위 도표에서 ( )로 표시된 것은 意味標識를, [ ]는 識別素를, < >는 選擇制限을 각각 나타낸다. 기호로써 생략되지 않은 ‘Noun’이라는 標識는 어휘항목의 統語範疇(N, V等)를 나타내는 文法標識(grammatical marker)며, 그 밑의 點(dot)은 Animate N, Common N, Count N처럼 더욱 特定화된(specified) 統語標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8) A. M. Pieter Seuren(1974), p. 6.

생성의미관자들은 특정한 特性의 集sum으로 어휘를 정의하는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어휘를 기술하고 있다.

“Items call for definitions in the form of syntactic trees, with hierarchies of labelled constituents, not unordered sets of features.”

(9) Katz(1972), p. 82.

(10) Ibid., p. 87. “The distinction between... (a) that distinguishers mark conceptually unanalyzable, purely perceptual qualities, and (b) that the distribution of each distinguisher in the dictionary is restricted to a single lexical item.”

이고 의미관계를 표시해 주는 마지막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을 통해 이 사실을 檢討해 보자.

(3) The suit is light.

(4) a. The suit is too light to wear in this cold weather.

b. The suit is too light to wear with that tie.

(3)의 light는 두 개의 意味環境 즉 heavy와 대조되는 환경과 dark와 대조되는 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볼 수 있으나, (4)의 light는 ‘Weight’에 관한 식별소와 ‘Color’에 관한 식별소만이 각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애매성이 없다. 이러한 식별소는 두 가지 면에서 意味標識와 그 개념을 달리하는데, 식별소는 첫째 概念的으로 분리시킬 수 없고 순수히 鑑識的 特性(perceptual qualities)을 표시하며, 둘째는 단지 어휘부에 실린 한 개의 어휘항목에만 배분된다는 것이다.<sup>(10)</sup>

選擇制限이란 意味標識의 結合에 의해 표현된 의미가 보다 上位의 복합된 구성요소를 형성키 위해 다른 의미들과 結合될 때의 조건을 意味標識로 나타낼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용사 gold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i) sense of being made of a certain malleable metallic element와 ii)

sense of having a deep yellowish color 가 그것이다. 이런 gold 는 truth, thought, virtue 등의 명사되는 共起할 수 없고, 'gold mist'가 컷빈제의 의미를 갖는다면 이 표현은 無意味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도표 (3)의 W<sub>2</sub> 앞에는 old 가 올 수 없다. 이러한 선택제한은 文의 의미단독을 위한 融合體(amalgamation)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2 어휘항목의 의미표현은 낱말 단을 분리해서는 意義가 없고, 文脈속의 상호관계성, 즉 統辭論에 근거한 理論(syntactically based theory)의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Chomsky는 文脈自由規則(context1-free rules)과 文脈依存規則(context-sensitive rules)으로 설명을 했는데, 前者는 名詞를 하위 구분하여 그 낱말의 固有的 特性(inherent feature)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註 7 참조), 後者는 다시 賢密下位範疇化區分規則(strict subcategorization rules)과 選擇規則(selectional rules)으로 하위 분류된다. 이런 규칙들에 의해 도입된 특성을 각각 건밀하위범주화특성과 선택 특성이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文脈特性(contextual feature)이라 하는데 이들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자.

選擇特性에 대하여 Langendon은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We call semantic features of verbs which make reference to semantic feature specifications of noun phrases with they occur Selectional Features"<sup>(11)</sup>

우선 두 문장 (5)와 (6)을 검토해 보자.

(5) Harry drank a glass of water.

(6)\* Harry drank a piece of paper.

(6)의 내적인 모순은 동사 drink 가 통어적 특성으로서 [2Penetrable]<sup>(12)</sup>인 목적어 NP 와만 共起할 수 있는데도, a piece of paper 는 [3Penetrable]인 데 기인한다. 이런 특성은 [-(2 Penetrable)]로 表記할 수 있는데, [-( )]는 동사의 위치를 말한다. 다음은 목적어 NP 가 特定化 되지 않은 문장 (7)의 경우를 보자.

(7) Harry drank a lot of foul-smelling stuff.

이 문장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적

어 NP 에 [2 Penetrable]의 特定화가 加대자가 된다. 동사에 대한 이런 선택특성은 주어 NP 에도 또한 제한을 주는데 동사 drink 는 [(+Animate)\_]와 같은 주어 NP 의 特定화를 요구하게 되어, 그 결과 [(+Animate)\_(2 Penetrable)]이라는 文脈特性을 갖게 된다.

(8) a. Those children *talked* to me.

b. \* Those ants *talked* to me.

(9) a. A dog *ran* rapidly into the street.

b. \* Rock *ran* rapidly into the street.

(10) a. His coat *lay* on the bed.

b. \* His curiosity *lay* on the bed.

(11) a. \* 그 사람은 바위를 마셨다.

b. \* 치방이 침을 깨었다.

위에서 동사 talk 는 [+Human], run 은 [-Animate], lie 는 [+Concrete], '깨다'는 [+Concrete]를 각각 주어 NP 로 요구하며, (11, a)의 '마시다'는 액체명사 즉 [2 Penetrable]을 목적어 NP 로 요구하고 있다.

선택특성과 아울러 特定한 동사의 주어나 목적어로서 나타날 수 있는 NP 에 附加되는 어휘적 制限을 選擇制限이라 한다. 이러한 선택제한은 동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形容詞와 名詞 사어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 문장을 살펴 보자.

(12) a. It's addled.

b. He is reading something.

(13) a. The doctor is conscientious in his work.

b. \* The dog is conscientious in his work

(14) a. The dog is cunning.

b. \* The street is cunning.

例文 (12)는 동사가 NP 에 特定特性화를 부과하는 경우로 a의 It 는 동사 addle로 인해서 사라나게란 혹은 사람의 두뇌를 칭하는 것으로 制限을 받으며, b의 something도 印刷物이란 特定화가 담겨져 해석되어진다. 例文 (13), (14)는 形容詞가 NP 에 特定화를 부과하는 것으로, conscientious는 주어 NP 에 [+Human]을, cunning은 [-Animate]를 각각 要求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自動詞와 他動詞를 또한 特性으

(11) D. Terence Langendon (1969), p. 42.

(12) Langendon(1969)은 명사가 지니는 固有特性(inherent feature) 중에는 二分的 性格(binary feature)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한 例로 浸透性(Penetrable)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air, vapor, oxygen 등은 [1 Penetrable]로, milk, juice, coffee 등은 [2 Penetrable]로, glass, skin, copper 등은 [3 Penetrable]로 분류되고 있다.

로 表示할 수 있다. 동사의 이러한 특성은 각각 [ ] 와 [\_\_NP]로써 표기되며, NP의 특성화를 언급하는 선택특성과는 달리 단지 NP의 존재여부를 언급할 따름이다. 그 결과 이 규칙의 위반은 의미상의 矛盾보다는 非文法性을 초래한다.<sup>(13)</sup> 더구나 이런 특성은 어떤 동사와 함께 쓰여지는 다른 구성소 即 NP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동사의 범주를 區分해 주기 때문에 賢密下位範疇化特性이라 부른다.

- (15) a. We lay there.           \* We lay.
- b. He lurked outside.   \* He lurked.
- (16) a. He handed the paper to me.
- b.\* \* He handed the paper.
- (17) a.\* 철수는 울면서 잤었다.
- b.\* 그는 나에게 주었다.

例文 (15)는 [\_\_Place]특성, (16)와 (17. b)는 [\_\_NP place]특성, (17. a)는 [\_\_NP]특성을 각각 가지는 동사의 例들이다.

II.3 지금까지 우리들은 표준이론과 관련하여 어휘가 辭典속에 내포하고 있는 意味情報과 文章속의 構造情報를 고찰해 왔는데, 다음은 이런 情報를 바탕으로 심층구조에서 의미를 해석해 내는 裝置인 投射規則에 대해서 알아 보자.

最終分枝句構造圖에 어휘 대치가 이루어진 후 심층구조에 있는 어휘항목은 辭典으로부터 알맞은 語彙判讀을 부여 받는데, 이때 사전속에 어휘의 형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意味어규칙에 의거해서 제외되었던 意味標識들을 재생시킴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생긴 構造標識를 Katz는 ‘어휘적으로 判讀된 基底句標識’(lexical interpreted underlying phrase marker)라고 칭하면서, 투사규칙이란 이처럼 해석된 어휘판독에 작용해서 ‘意味적으로 판독된 基底句標識’(semantically interpreted underlying phrase markers)를 생성해 내는 裝置<sup>(14)</sup>라고 했다. 환언하면 이 규칙은 어휘목록에 간직되어 있는 意味情報과 통어론에 의하여 특정화된 構造情報를 이용하여 개개 어휘를 그들 어휘의 연결체와 관련을 짓기 위한 裝置이며, Grinder & Elgin은 이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13) Langendoen(1969), p. 43.

“They do not impose any features on Noun Phrase and hence violation of them does not lead to internal contraction; it leads to ungrammaticality.”

(14) Katz(1972), p. 46. “The projection rules finish the job of giving the readings for the constituents of a sentence by assigning all of the readings, and convert lexically interpreted underlying phrase markers into semantically interpreted underlying phrase markers.”

(15) Grinder & Elgin(1973), p. 113.

(16) Ibid., p. 114.

“The Projection Rules accepts as input the tree representation specified by the PSG, including the terminal elements of the tree and the lexicon, and produces reading.”<sup>(15)</sup>

그래서 이런 투사규칙은 分枝圖 表示의 최하위층에 삽입된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意味標識의 集수에 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겠다. 또한 이 규칙은 일련의 의미포지의 集身體인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면서 최강상의 文章節點(S-node)에 이를 때까지 분기도 전체를 上向進行하는 작용을 하는데, 最下位의 句構造에서 시작하여 그 句構造의 정상에 이르는 동안 각 中間節點마다 하나의 融合(amalgation)을 이룩하면서 마침내 S-節點에 이르게 되어 意味를 대략 내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作用은

“The meaning of the entire sentence is a function of the meaning of its individual constituents.”<sup>(16)</sup>

라는 主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결점에서 分枝된 두 어휘항목들의 融合解釋作用만을 살펴 보자.

일반적으로 honest는 ‘of good moral character, virtuous, upright’를 뜻하나 woman에 적용된 경우에는 ‘chaste’란 의미가 첨가된다. 그래서 honest는 辭典記載項 内の 여러 의미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 honest→Adjective→(Evaluative)→(Moral)→[Innocent of illicit sexual intercourse] <(Human)∨(Female)>. 이런 판독에 내재된 選擇制限은 honest가 수식하는 頭部(head)의 판독이 (Human)과 (Female)이란 두 개의 意味標識를 내포하고 있을 때만 융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honest woman이란 表現은 “a woman who is not guilty of illicit sexual intercourse”란 의미 하나를 갖게 된다. 그러나 honest geranium이란 표현은 융합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의미를 附與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融合過程은 문장상에서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아야 하나 Katz & Fodor(1964, pp. 510, 530)가 ‘The man hits the colorful ball’이란 例文을 통하여

상세히 論하고 있으므로 생각하겠다.

다음으로 構造關係가 문장을 판독하는 투사규칙의 入力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자. 문장의 의미는 구성요소 항목들의 意味機能일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文法的關係들의 機能이기도 하다. 이 말은 투사규칙의 작용과정에서 어휘의 意味情報 외에 단어 부분의 構造情報도 필요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음 (18)의 a, b를 검토해 보자.

- (18) a. The cat ate the rat.  
b. The rat ate the cat.

위 a와 b의 融合完了通路는 동일한 수의 意味標識를 가진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의 뜻의 차이는 어휘에 있지 않고 어떠한 NP가 주어의 위치에 오느냐 목적어의 위치에 오느냐 하는 構造關係에 있기 때문에 Grinder & Elgin은

“Structural relations, as specified by the syntax, are also a necessary part of the input to the P.R.”<sup>(17)</sup>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構造關係가 문장을 판독하는 투사규칙의 入力이 된다는 命題는 구조의 형태를 바꾸는 변형이 적용되기 이전에 투사규칙이 작용해야 함을 잘 말해 주고 있다.<sup>(18)</sup>

II·4 투사규칙이 意味를 解釋해 내는 機械的 裝置이나 오직 유일한 규칙은 아니며 소위 불투명한 문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들이 필요한데, 의미들은 유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그 한 例다. 예를 들면, 타동사 shake는 일반적으로 [(+Animate) — (+Concrete)]라는 선택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성표시도 絕對인 것이 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타동사 shake의 主語는 animate NP 뿐만 아니라 (19, a)처럼 어떤 힘도 될 수 있으며, 목적어로서 (19, b)처럼 抽象的인 NP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9) a. The wind shook the trees.  
b. John's recent dealings have shaken my faith in his integrity.

(17) Ibid., p. 114.

(18) ① Ibid., p. 117. “The P.R. performs this operation before the transformations introduce their specific distortions.”

② Katz & Postal, op. cit., p. 68.

(19) Pyles and Algeo, op. cit., pp. 225~226.

그뒤에 따르면 lady는 원래 the female head of a great house, wife of a lord인데 a woman of the upper classes로, 다시 sales ladies, cleaning ladies로 일반화되었고 원래 wild creature였던 deer는 사슴으로 특수화된 것이다.

(20) Jacobs and Rosenbaum (1970), p. 15.

뿐만 아니라 [—[2 Penetrable]]이라는 특성을 가진 drink에도 (20)과 같은 文法的인 문장이 派生될 수 있다.

- (20) Harry drank mysteries and detective stories.

이런 難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학자들은 의미의 類推的變更 즉 隱喻的廣大(metaphoric extension)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어느 선까지 확대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Pyles & Algeo는 의미적 변경을 一般化(generalization), 特殊化(specialization), 意味轉移(semantic transfer)로 구분하여 lady, deer, tiger를 각각의 例로 제시하고 있다.<sup>(19)</sup> 그래서 그들은 animate한 tiger를 意味轉移시킴으로써 거칠고 험센 野戰的 성격의 가진 남성에 비유했다.

- (21) a. He is a tiger.

- b. He is a sly dog.

또한 Jacobs & Rosenbaum도 {adjective, concrete, surface quality} → adjective abstract로 확대시키는 규칙<sup>(20)</sup>을 제시하면서 ‘colorful’을 ball뿐 아니라 idea라는 抽象名詞에도 적용하여 이를 解釋하고 있다.

- (22) The ball (the idea) is colorful

### III. 表層構造와 意味解釋

지금까지 보아 온 Chomsky의 標準理論은 (i)문장의 의미해석은 진적으로 심층구조에 의해 決定된다는 事實과 (i)變形은 意味存在的인 작용(Transformation are meaning-preserving operation)이라는 가설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言語現狀 중에는 똑같은 심층구조에서 파생된 문장이 表面上 상호 相異한 容법상의 環境과 意味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23) a. Talent, Tom has; money, he has not.

- b. Tom has talent; he has not money.



문장 (23, a)는 同一한 심층구조에서 파생된 b보다는 Tom의 철부지 자질의 풍성함과 강제적인 빈곤의 狀態를 비교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意味의 差異는 심층구조 보다는 表層構造상의 語順에서 비롯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런 難題를 해결키 위해 Chomsky는 종래의 Aspects理論을 확장, 보완하여 廣大標準理論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그는 “Semantic interpretation is held to be determined by the pair,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rather than by the deep structure alone.”로 수정했으며 동시에 “변형은 의미보존적인 작용이다”라는 假說을 표기하였다. 그러면 변형은 意味變化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意味解釋의 人力은 심층구조 뿐 아니라 表層構造도 될 수 있다는 이 수정론의 타당성은 檢討해 보자.

Katz는 그의 *Semantic Theory*(1972)에서 표층구조에서의 의미해석 양상을 修辭學上(rhetorical) 解釋과 非修辭學上(nonrhetorical) 解釋으로 구분하여, 話題(topic), 焦點(focus), 前題(presupposition)와 같은 純粹表層現象(purely surface structure phenomena) 概念은 前者에, 論理的 形態에 관한 문제(matters of logical form) 등은 後者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다음 문장

“Among nonrhetorical interpretations are the case of the positions of certain adverbs like ‘even’ and ‘only’, the scope relations between occurrences of ‘not’ and certain occurrences of quantifiers, and certain pronominal relations that appear to be a function of stress or surface positioning of elements like ‘each’”<sup>(21)</sup>

에 잘 반영되어 있다. 分野別로 하나씩 살펴보자.

Ⅲ.1 “表層構造의 특성들은 修辭學上 有意味하다(Surface structure features are rhetorically significant)<sup>(22)</sup>는 개념에 입각한 표층구조 의미해석론은 語順에 따라 意味가 轉移되는 話題 現象을

한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Strunk(1959)는 文章上에서 文頭에 나오는 구성 요소는 主語 以上으로 강조가 되며(문장 24), 주어 가 目的語의 위치에 놓일 때도 또한 특별히 강조가 된다<sup>(23)</sup>”(문장 25)했다.

(24) a. Deceit or treachery he could never forgive.

b. Home is the sailor.

(25) Through the middle of the valley flowed a winding stream.

이러한 表層構造의 topic에 따른 意味轉移現象을 Katz는 “文章의 표층구조상에서 語順의 變化는 통상 그 문장이 원래 가지는 문체적 특성을 줄이며, 文頭에 나오는 NP가 topic을 전달한다<sup>(24)</sup>”고 하면서 다음 문장을 그 例로 제시하고 있다.

(26) a. Long bats are easy to hit home runs with.

b. Home runs are easy to hit with long bats.

바꾸어 쓰기 文章(paraphrase)인 (26)의 경우 a는 bats에 대해서, b는 Home run에 대해서 각각 斷言을 내리며 對話(discourse)를 시작하고 있고, 또한 Home run을 치는 방법에 대한 표현은 b가 a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意味上的 差異가 있는 듯 한데, 이는 심층구조의 한 요소가 표층구조의 文頭に 오게 되면서 비롯된다. 이처럼 보다 민감한 의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文學作品의 例를 통하여 더욱 그 理解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27) a. Someone must have been telling lies about Joseph K, for without having done anything wrong he was arrested one fine morning.

b. Lies must have been being told about Joseph K, for...

이 문장은 Kafka의 작품 *The Trial*의 첫 부분

(21) Katz (1972), p. 435.

(22) Ibid., p. 420. 여기서 rhetorically는 문장의 표현형태, 광의의 의미에서는 文體(style)문제에 관여하는 속성이나 관련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in the sense of ‘rhetorically’ where it refers to properties and relations having to do with expressive form of sentences, with matters of style in the broadest sense.”

(23) White Strunk Jr(1959), p. 27.

“Almost any element of a sentence other than its subject becomes emphatic when taking first position. ...that the subject gains special emphasis by taking the position of the object.”

(24) Katz, op. cit., p. 422.

“The leftmost NP in the surface structures of the sentence conveys the topic of the discourse from the fact that an abrupt switch reduces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discourse.”

인데 이 각표에서 그가 topic을 Lies에 두지 않고 修辭學上 Someone에 둔 能動態를 택한 것은 內容展開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각표는 주인공 Joseph K가 자기를 포함한 匿名의 거짓말장이의 存在를 表明으로써 누명을 벗으려는 것으로 始終一貫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2 Chomsky는 그의 論文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1970)을 통해 “의문문에서 主強勢를 받으며 音調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構成要素가 焦點(focus)이 되며, 그 焦點에 따라 의문문의 자연스런 應答이 결정된다<sup>(25)</sup>고 했다.

(28) a. Was it a red-shirted *ex-convict* that he was warned to look out for?

b. Was it an *ex-convict* with a red *shirt* that he was warned...?

(29) a. No, he was warned to look out for a red-shirted *automobile salesman*.

b. No, he was warned... an *ex-convict* with a red *tie*.

위 (28)의 두 文章은 똑같은 심층구조에서 파생된 문장들이나 자각 그 焦點을 달리하고 있다는 點에서 意味의 差異가 있는 듯 한데 이 事實은 相異한 표층구조를 갖고 있는 (28)의 a, b에 대한 자연스런 응답이 (29)의 a, b가 된다는 點에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焦點에 의한 표층구조상의 意味情報은 의문문과 그 應答 關係外에 音調中心部(intonation contour)를 통해서도 또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장은 최소한 意味情報의 요소가 되는 한 개 이상의 音調(intonation)를 가지며, 焦點은 이 音調中心部가 된다.”<sup>(26)</sup> 이 사실에 입각해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30) a. Jóhn is reading the novel. →a'. By Good, John, of all people, is reading

the novel.

b. John is réading the novel. →b'. By Good, John is, of all thing; reading the novel.

위의 두 문장은 John에 대해서 공히 똑같은 主張(assertion)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同-한 深層構造를 갖고 있는 同義文이지만, 음조중심부의 위치에 따라서 그 焦點과 前題가 다르다. 即 a의 초점은 John이며 前題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고, b는 초점이 raeding이며 전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意味의 差異는 주로 감정(emotion) 등-기쁨, 슬픔, 놀람-을 표현하는 言語들의 音調(intonation)에서 주로 考察해 볼 수 있으며, 이런 事實은 話者が 무엇에 놀람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각 文章의 意味를 확대시켜 놓은 a', b'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Ⅲ.3 焦點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개념으로 Chomsky는 前題(presupposition)의 概念을 들고 있다. 그는 “전제를 조건을 變數로 매치할 때 야기되는 概念”<sup>(27)</sup>으로 定義하면서 아래 문장 (31)의 a, b의 전제는 a', b'라고 설명하고 있다.

(31) a. It is poetry that John writes in the room. →a'. John writes *something* in the room.

b. It is in the room that John writes poetry. →b'. John writes poetry *somewhere*.

위 예문을 통해서 똑같은 심층구조를 가진 문장이 變形에 의하여 相異하게 표현되었을 때는 그 전제를 자각 달리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실은 “人間이 발화할 수 있는 言語의 모든 表現들은 항상 하나의 指示物(reference)을 가진다”<sup>(28)</sup>고 하는 철학자 Frege의 前題論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25) Chomsky,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1970) in Danny D. Steinberg and Leon A. Jakobovitz, eds., 1971, p.110. “The natural answer of the question is determined by the focus of the question, the constituent in the question that receives the main stress and that serves as the point of maximal inflection of the pitch contour.”

(26)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72), p.937.

“Each tone unit of sentence represents a unit of information, and the place where the nucleus (or intonation center) falls is the focus of information. A sentence has at least one tone unit, ...”

(27) Chomsky (1970), p.70. “The notion of presupposition is that which results from the replacement of the focus by a variable.”

(28) Fillmore & Langendoen (1971), p.27.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mp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그런데 이와는 달리 동일한 형태의 構文을 가진 문장이 發話環境에 따라 자기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例를 들면 John 이 Smith 에게 "I'll come to orgy."라는 문장을 말했다고 할 경우 이 表現은 別話環境에 따라 John 이 Smith 에게 (i)약속을 한 것, (ii) 警告를 한 것, (iii) 陳述을 한 것, (iv) 자기 意思表示를 한 것 등 4가지로 意味解釋이 주어질 수 있다.

전제가 意味表現의 일부가 됨은 다음 문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 (32) a. Out store sells alligator shoes.  
b. Our store sells horse shoes.

일반적인 環境下에서 문장 a 는 '악어가죽으로 된 신'(shoes made from alligator skins), b 는 '말이 신을 함'(shoes for horses)이라는 의미를 부여 받는다. 그러나 a 에서 'shoes for alligators', b 에서 'shoes made from the skin of horses'라는 의미적 모순을 내포한 判讀이 가능하므로 文章(32. a)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환경선택에 'Alligators don't wear shoes.'라는 사실을 前題해야만 하고, (32. b)에도 'Horses wear shoes, although shoes for people are not made from the skin of horses.'라는 사실을 前題해야만 한다.

Chomsky 는 또한 前題란 "識別되어지는 갖가지 개념은 모두 包含한다"<sup>(29)</sup>라고 하면서 문장의 전체에 의해 부여되어지는 命題(proposition)도 또한 그 문장의 전체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 문장을 보라.

- (33) a. When did you stop beating your wife?  
b. You stopped beating your wife at some time.  
c. You have beaten your wife at some time.

위 例文에서 문장 b 는 a 의 전제이며, 문장 c 는 b 의 전제가 된다. 그 결과 문장 c 도 a 의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 전제의 발생이 실패하면, 그 문장은 虛(false)가 되거나 非適切(irrelevant)하게 되어 올바른 意味解釋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제의 眞은 어떤 말화문이 의미의 眞理置(truth value)를 가질 수 있는 先決條件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lease open

the door'라는 문장이 眞理置가 있는 命令의 意味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i) 發話目標(locutionary target)가 되는 聽者가 우선 영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ii) 門이 닫혀진 狀態로 존재하는 것 등이 眞이 되어야 한다.

Ⅲ.4 지금까지 우리들은 심층구조에 표시될 수 없는 언어의 意味現象을 修辭學上的 問題(matters of rhetoric or style)로 볼 수 있는 순수 표층구조 현상(purely surface structure phenomena)만을 주로 考察해 왔는데, Chomsky 는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도 표층구조상의 의미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선 數量詞(quantifier)와 否定要素(negative)가 들어 있는 문장 (34)의 能動文과 受動文에 대한 의미해석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 (34) a.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는다.  
b. 많은 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힌다.

위 두 문장은 "變形은 意味를 保存한다"(No transformation if properly formulated changes meaning)는 종래의 標準理論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다. 비록 동일한 심층구조에서 변형에 의해 파생되었지만 그 意味는 갖지 않기 때문이다. 即 (34. a) 는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고, b 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많다는 뜻이다. 數量詞가 있는 문장에서 변형에 의해 의미가 變化될 수 있다는 또 다른 例는 다음과 같은 等位構造縮約變形(conjunction reduction transformatio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35) a. Few students are popular and few students are likely to succeed.  
b. Few students are both popular and likely to succeed.

위 문장 (35. b)는 Chomsky 가 제시한 등위구조 축약규칙에 의해 a 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나, 意味에 있어선 전혀 같지 않다.<sup>(30)</sup> 즉 두 문장에서 'few students'가 어떤 特定化된(specified) few 인 경우(i. e., those three students, John)는 同一한 意味를 갖지만, 非特定化된 경우는 상호 相異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each-移動(each-hopping)에

(29) Chomsky(1970), p. 77. "Presupposition covers a number of notions that should be distinguished, ..."

(30) Fillmore & Langendoen, op. cit., p. 13.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G. Lakoff(1965)는 (35. b)는 "Students who are both popular and likely to succeed are few."에서 파생되었고, 等位構造縮約 規則은 非指示의 名詞句(nonreferential NP)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변형은 의미를 保存한다"고 하는 가설을 계속 固執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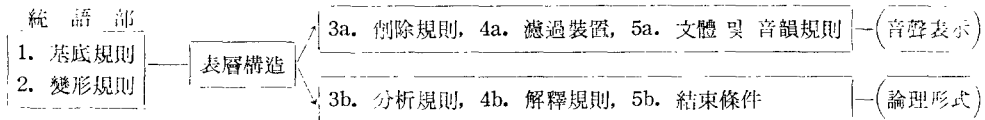
의하여 과생된 문장 (36)에서의 대명사 指示解釋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 (36) a. Each of the man hates his brothers.
- b. The men each hate his brothers.

여기서 문장 a의 his는 each of the men을 지적하나, b의 his는 men 以外の 單 人를 指稱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Ⅳ. 痕迹表層構造<sup>(31)</sup>와 意味解釋

앞에서 문장의 의미해석은 심층구조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표층구조가 의미해석의 入力이 된다는 사실을 實例를 들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理論은 표층의미 현상의 실질적인 해석 규칙과 새로운 意味解釋部門을 提示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부분적이나마 그 해결책을 제공한 것이 곧 Chomsky(1975)의 痕迹理論(Trace Theory)이다. 이 흔적이론은 NP의 이동과 관련하여 그것이 있던 자리에 흔적 t<sup>(32)</sup>를 표시해 줌으로써 表層構造에서 이 t를 이용하여 意味解釋을 한다는 것인데, Chomsky는 흔적이론으로 수정된 이 새로운 문법모형은 核心文法(Core Grammar)이라 했다. 핵심문법은 고도로 制限된 문법체계이지만 普遍文法에서 나온 것이며, 無標識狀態에 있는 非特定文法인데 이를 圖示하면 도표 (4)와 같다.<sup>(33)</sup>



(도표 4)

(31) 이 用語는 흔적이론에서의 표층구조를 정하기 위해 筆者가 붙인 것인데 Newmeyer(1980)는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n the model of Core Grammar all interpretation takes place at surface structure, though this level in two important ways different from earlier conceptions. First, it is enriched by virtue of its containing traces left by application of the movement rules, that is, 'Move NP' and 'Move WH-phrase'. Second, it is considerably 'more abstract' than in earlier conceptions, since deletions, filters, and stylistic rules apply after the transformations have defined that level." (p.230).

(32) NP 移動 후 흔적 t를 남기는 것은 Postal과 Ross에 의해 이미 提示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삭제규칙에서는 자유규칙 適用時 참고가 되도록 'doom marker'를 남긴다고 했으며, 이러한 개념이 Emonds에 와서는 'empty node'로, Pelmuter에 와서는 'shadow pronoun'의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그 후에 trace 't'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33) 朴英壽(慶北大學校 語文研究 第五輯 別冊), p.50.

(34) 애매성이 있는 다음 문장 i)은 이동된 NP의 조응관계에 있는 흔적 t에 同一指標를 표층구조에 표시함으로써 ii)의 a, b로 區分해 볼 수 있다.

- i) 누구든지 영이는 착하다고 믿는다.
- ii) a. 누구든지<sub>i</sub> 영이는 [t<sub>i</sub> 착하다]고 믿는다.
- b. 누구든지 영이는 [t<sub>j</sub> 착하다]고 믿는다.

(35) t는 이동된 NP에 의하여 남겨진 자취이고, PRO는 Equi-NP deletion에 의해 남겨진 것이다. 따라서 PRO는 문장에 따라 그 指標(index)가 달라지는데, 동사가 promise이면 主語의 同一指標를 가지고, persuade이면 目的語의 同一指標를 가진다. (朴英壽, 1980 : p.46)

上記 사실을 바탕으로 本章에서는 우선 흔적표층구조를 入力으로 하는 의미해석 규칙들, 即 도표 (2)의 SI-1에 해당하는 3b 分析規則(construal rule), 4b 解釋規則(interpretive rule), 5b 結束條件(conditions on binding)을 記述함으로써 흔적이론과 표층해석 사이의 關係를 규명하며, 다음으로 Fien-go(1977)가 제시한 흔적이론의 意味의 含意에 따른 표층해석의 機能을 밝히고자 한다.

Ⅳ.1 흔적표층구조에 적용되는 분석규칙은 反復要素(anaphor)를 그 先行詞에 연관시켜 주며, 이 목적에 사용되는 裝置는 共同指標化(coindexing)<sup>(34)</sup> 방법이다. 실제로 다음 (37)과 같은 구조의 그것이 실제 문장으로 나타난 (38)을 보자.

- (37) [COMP Wh-phrase + WH] [<sub>s</sub> PRO<sup>(35)</sup> to V ...t...] (t: the trace of the Wh-phrase)

- (38) a. It is unclear who to visit.
- b. John asked Bill who to visit.
- c. John told Bill who to visit.

(38. a-c)는 그 뜻의 구별이 매우 애매하나 흔적이론에 따라서 (39 a-c)처럼 표층구조에 흔적 t와 共同指標를 표시해 두면 그 뜻을 쉽게 區別할 수 있다.

- (39) a. It is unclear who [PRO<sub>arb</sub> to visit t]
- b. John<sub>i</sub> asked Bill who [PRO<sub>i</sub> to visit t]
- c. John told Bill<sub>i</sub> who [PRO<sub>i</sub> to visit t]

(39a)에서 PRO는 임의적인 것으로 指標 arb는

임의지시(arbitrary refernce)를 나타낸다. 그러나  
 방문을 하는 주체자가 (39b)에서는 John의 支配  
 (control)를 받고, (39c)에서는 Bill의 지배를 받  
 는데 이러한 支配關係를 결정하여 의미해석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은 共同指標(Coindex)規則이다.

한편 先行하는 NP와 그것에 照應하는 상호대명  
 사 each other나 재귀대명사 self에는 공동지표 *i*  
 와 *j*를 각각 표시하여 그 의미를 풀이해 내는 것이  
 곧 앞에서 언급한 解釋規則(interpretive rule)이  
 다.

(40) a. The men<sub>i</sub> like [NP<sub>i</sub> each other].

b. \*Each other like the men.

(41) a. John<sub>i</sub> likes [NP<sub>i</sub> himself]

b. \*Himself likes John.

(42) a. 칠수는 자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렸  
 다.

b. \*자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칠수는 때  
 렸다.

위의 (40b), (41b), (42b)는 the men, John, 칠  
 수가 각각 右로 이동하여 [NP(each other)], [NP  
 (himself)], [NP(자기)]자리에 오고, 그 뒤에 t로  
 처 each other, himself, 자기를 남겨 適切結束  
 (proper binding)조건<sup>(36)</sup>을 위배했기 때문에 非文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a. They<sub>i</sub> want [them<sub>i</sub> to win]

b. \*He<sub>i</sub> believes [him<sub>i</sub> to be crazy]

(43a)가 適格文이 됨은 they≠them의 관계가  
 성립되어, 代名詞와 NP사이의 相互指示(Corefe-  
 rence)를 배제하는 대명사 해석규칙인 互對 해석  
 (Reciprocal Interpretation)<sup>(37)</sup>을 준수했기 때문  
 이고, (43b)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He=him)  
 非文이 되었다.

다음으로 NP-PRO 관계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  
 가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PRO는 그 선행사  
 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 공동지표  
 규칙을 적용하려면 NP는 母文에서 선택하고 PRO

는 內包文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지배조건(Command  
 Condition)이 있다.(例文 39 參照). 이 지배조건은  
 命題孤立조건(Propositional Island Condition) 및  
 別定主語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과 더  
 붙어 結束條件(binding condition)을 이루고 있다.

Chomsky는 PIC를 'Y에서 α가 有限節(時制가  
 있는 S)인 경우 이 Y를 X와 연루시킬 수 없다'는  
 규칙으로 정의하고, SSC를 'Y에서 α가 別容主語  
 를 가지는 경우 이 Y를 X와 연루시킬 수 없다'는  
 규칙으로 정의했다. 이 두 규칙은 NP-movement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44) a. PIC: (i) Bill is believed [ $\alpha$  t to be  
 a fool]

(ii) \*Bill is believed [ $\alpha$  t is a  
 fool]

b. SSC: (i) John seems [ $\alpha$  t to like Bill]

(ii) \*John seems [ $\alpha$  John to like t]

(ai)에서는 α節이 有限節 즉 독립절이 아니기 때  
 문에 PIC의 저촉을 받지 않으나, (a(ii))에서는 α節  
 이 독립절이므로 저촉을 받는다. (bi)에서는 α節  
 에 별도의 주어가 없으므로 SSC에 저촉을 받지 않  
 으나, (b(ii))에서는 α節에 John이라는 別定主語가  
 있으므로 저촉을 받아 非文이 된다. 최초 이 두 조  
 건은 변형의 제약으로 보았으나 그 후 Chomsky는  
 잘 짜여진 포층구조(well-formed surface struc-  
 ture)에 작용하는 條件으로 再解釋을 하였는데, 이  
 로 말미암아 分析規則 및 NP移動과 관련된 각종  
 조건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진다고 진술하면서 이들  
 두 규칙을 anaphora의 조건(따라서 表層構造 意味  
 解釋의 條件)으로 보고 있다.

IV.2 Fiengo는 흔적이론을 도입하면 모든 변형  
 은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外在  
 的 順序(extrinsic ordering)도 필요없게 되며, 그  
 결과 통어규칙 적용 시의 각종 조건이 원칙상 除去  
 되어지기 때문에 統語上 잘 짜여진(syntactically  
 well-formed) 文章을 過剩生成(overgeneration)하

(36) NP가 이동한 후에 남은 흔적 t가 이동된 NP와 직접적 연속되어 있으나 하는 문제는 흔적이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Chomsky(1975)와 Fiengo(1977)가 제시한 직접 연속요건은 "NP는 포층구조에서 그 t를 선행, 지배해야 한다." (NP must precede (and command) its trace at surface structure)는 것이다. "The antecedent of a reflexive (or reciprocal) pronoun must precede or asymmetrically command it." (Fiengo, 1977, p.51.)

그러나 Fiengo(1977, p.51.)는 上記 직접 연속의칙을 위배해도 適格文이 되는 다음 i), ii)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i) a. Physicists like herself are rare.

b. Faith in yourself is useful in this job.

ii) Pictures of himself amused him.

(37) Fiengo(1977, p.52.). "RI precludes coreference between pronouns and other NPs in certain environments, but, ..., it obeys Chomsky's conditions." 한편 (43b)의 非文은 Chomsky의 別定주어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을 위배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러는 경향<sup>(38)</sup>이 있게 되나 표층해석이론이 이러한 문장의 종단을 방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동태와 속이 및 문법관계에 대한 해석을 그 질례로 제시하고 있다.

(45) a. \*Man is uninhabited Antarctica.

b. Judy is a good person.

수동태(45a)의 뚜렷한 특성중의 하나는 수동태가 술부형용사 구문(predicate adjective construction) (45b)와 異體同形(homomorphy)을 이룬다는 것이다.<sup>(39)</sup> 그러나 표준어론에서는 수동변형이 連辭(copula)를 삽입하고, 여러 면에서 분사형용사(participial adjective; interesting, well-known 따위)와 유사한 동사형태를 파생해 낸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 결과 Fiengo는 문장 (45)의 표층구조 형태로 (46)을 가정하면서, 여기에 다시 (47)과 같은 다시 쓰기 규칙을 도입하여 (45a, b)의 차이를 意味속성(semantic property)의 표현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46)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COPULA...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47)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COPULA...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  
 $\rightarrow$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

규칙 (47)에 따르면 (45b)는 good person(Judy)처럼 의미속성을 가질 수 있으나, (45a)의 uninhabited Antarctica(man)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속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뿐만 아니라 동사와 명사에서도 가능한데, 그 결과 (47)보다 다음 일반화된 규칙 (49)가 생성된다.

(48) She was (tall, arrested, an actress).

(49)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COPULA...( $\left[ \begin{smallmatrix} +V \\ -V \end{smallmatrix} \right]$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 $\rightarrow$   
 (( $\left[ \begin{smallmatrix} -V \\ -V \end{smallmatrix} \right]$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 (... $\left[ \begin{smallmatrix} +N \\ -V \end{smallmatrix} \right]$ ...)

규칙 (49)는 문장 (45)와 (48)에 같이 적용되며, 의미속성과 문법관계를 표현하는 이러한 표층해석이론이 일단 受動態에 擴大適用되므로써 過剩生成된 統語文章의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다.

한편 쓰기이론에 따른 이런 표층해석이론을 도입

하면 다음 문장의 속어적의미(idiomatc meaning)를 해석할 수가 있다.

(50) a. John kicked the bucket.<sup>(40)</sup>

b. The bucket was kicked by John.

문장 (50a)는 속어해석(idiomatc interpretation: 여기서는 die의 뜻)과 문자해석(literal interpretation)이 같이 가능한데 비해서, (50. b)는 문자해석만이 가능하다. 규칙 (49)가 문자해석만이 가능한 (50. b)에 局限適用되어 the bucket와 John의 관계를 kicked로 特定化하는 意味解釋을 加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50. b)가 속어해석은 받게된 경우에는 표층해석규칙 (49)에 의해 過剩生成된 非文으로 처리되어져 버린다.

다음으로 文法關係(grammatical relation)에 대한 解釋을 살펴보면, ST나 EST에서는 문법관계 확인규칙이 심층구조 층위에 작용해서 NP가 特定構造的 形態(specified structural configuration)에 나타난 경우 그 NP에 特定 文法關係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흔적이론에서는

“The enrichment of surface structures with traces is sufficient to allow a theory of interpre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of that form to be stated at the level of surface structure.”

라는 立場을 취하면서 순수 표층구조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主語를 확인하고 있는 데 實例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자.

(51) a. [that picture]NP<sub>m</sub> was painted [e]NP<sub>m</sub> by a new technique.

b. [that picture]NP<sub>m</sub> painted [e]NP<sub>m</sub> by a new artist.

ST와 EST에서는 위 두 文章의 차이를 (51. b)가 심층구조의 능동태에서 파생되었고, (51. a)는 그렇지 못하다는 事實(\*A new technique painted that picture)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REST 내에서는 표층구조상의 構造的 差異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例文은

(38) Fiengo(1977), pp.46-47. "...the addition of trace. theory makes...that all transformations apply optionally... that no extrinsic ordering statements are requirep...

(39) Ibid, p.54. "One striking feature of the passive construction is that it appears to be homomorphous to the predicate adjective construction."

(40) 문장 (50a)는 속어해석과 문자해석의 두 의미를 가지나 아래 i)과 ii b)처럼 형용사 수식(adjectival modification)을 가하면 문자해석만이 가능하게 되며 이 경우에만 關係詞節變形(relative clause transformation)이 발생하게 된다.

i) John kicked the old leaky bucket

ii) a. The cat seems to be out of the bag.

b. The black cat is out of the bag.

the door, I sort of passed out. I was lucky, though. I mean I could've killed myself when I hit the floor. But all I did was sort of land on my side. It was a funny thing though, I felt better after I passed out. I really did. My arm sort of hurt, from where I fell, but I didn't feel so damn dizzy any more. (p. 204)

그가 왜 기절하여 넘어졌는지는 밝혀져 있다. 그러나 충분한 상징적 의미는 갖고 있다. 첫째 'landing'은 'falling'의 마지막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착지는 그러니까 現實과의 어쩔 수 없는 접촉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둘째로 그는 'landing'을 통해 일종의 catharsis를 경험한다. 이것은 diarrhea와 그의 의미적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 catharsis를 겪은 후 그는 구토나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셋째로 그가 'lucky'라 불렀듯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Seymour나 Teddy가 죽음을 택했던 것을 상기하면(그 죽음의 의미야 어쨌든) Holden의 작성은 현실 긍정으로의 전환에서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부터 Holden은 밝고 긍정적 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는 公案의 수련과정에서 주위를 억눌러 싸고 있던 얼음이 깨어지 나가는 순간이다. 부한한 행복감을 동반한 climactic epiphany는 Phoebe가 회전목마를 타고 돌 때 경험한다. 그는 온 몸이 비에 폭 젖어도 상관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본다. 이 epiphany는 Phoebe의 친절성과 Holden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작품이 지닌 최후의 paradox라던 Holden이 보호하겠던 어린이 즉 Phoebe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구제당하는 결정적 순간을 일깨워 준다는 점일 것이다.

I felt so damn happy all of a sudden, the way old Phoebe kept going around and around. I was damn near bawling, I felt so damn happy,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don't know why. It was just that she looked so damn nice, ... (p. 213)

## V.

지금까지 Zen Buddhism이 Salinger의 작품에

끼친 영향을 주로 *Nine Stories*, *The Catcher in the Rye*의 두 작품에서 찾아 보았다. 그 결과 각 작품들의 구조가 公案의 수련과정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모순된 상황, 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던 주인공들이 그 모순 또는 부정이 深化되어 나뉘는 끝물까지 갔다가, climactic epiphanies를 통해 그 모순 또는 부정의 벽을 넘어 넘거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었다. 그것이 epiphany인 것은 그 체험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사물, gesture 또는 웃기에서 얻어지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애정 또한 그러한 계기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진과할 수 없다. epiphany는 서구의 현대소설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Salinger는 *Nine Stories*와 *The Catcher in the Rye*의 두 작품에서 구조적인 면에서의 불교적 영향을 전통적인 소설기법에다 적절히 混入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이 두 작품이 아직도 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자주 논의되는 이유는 역시 이 두 작품이 현실과 충실한 전통적 소설기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Teddy"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목적의식이 노출되어, epiphany 또한 mystic experience로 변질되고 있다. 바로 이 불균형과 변질이 소설가로서의 Salinger의 decline을 결정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던가 한다.

## Bibliography

### 1. Texts

*The Catcher in the Rye*. A Bantam Book, 1978.

*Nine Stories*. Little, Brown and Company, 1953.

*Franny and Jojoey*. Little, Brown and Company, 1961.

*Raise High the Roof Beam, Carpenters And Seymour: An Introduc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9.

### 2. References

Grunwald, Henry A. (Ed.), *Salinger*. Harper & Row Pub., New York, 1962.

Harper, Howard M. *Desperate Faith*. The Uni.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Landquist, James *J.D. Salinger*. Frederick

Ungar Pub. Co., Inc., 1979.  
Watts, Alan W. *The Way of Zen*. Penguin  
Books Ltd., 1976.